

# 광주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안방 개최 '청신호'

지난 8일 월드컵경기장 실사 경기 감독관 호평 "베리 굿" 오늘 또는 내일께 결과 통보



광주FC가 아시아 무대를 다시 안방에서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실사에서 잔디 상태에 대한 호평을 받으며 정상적인 그라운드 컨디션을 인정 받았다.

AFC는 지난 8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실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광주FC와 상하이 선화의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5차전에 대한 개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슬랑오르 FC의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2(ACL2) 그룹 스테이지 H조 4차전을 관장한 싱가포르 국적의 카말루딘 라시드 경기 감독관이 맡았다.

카말루딘 감독관은 광주월드컵경기장 양측 골라인과 터치라인부터 하프라인까지 구석구석을 살폈다. 직접 공을 차 굴려 보기도 했고 골포스트에서 페널티마크의 거리와 골라인에서 크로스바의 높이 등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이였다.



카말루딘 라시드 아시아축구연맹 경기 감독관(가운데)이 지난 8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천연 잔디 상태 관련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잔디 컨디션을 점검한 카말루딘 감독관의 입에서는 "Very good(아주 좋다)"이라는 말이 나왔다. 약 2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광주FC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이 열렸던 때와는 180도 달린 평가다.

실제로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관리 주체인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FC와 조호르 다를 탁집 FC의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의 용인미르스타디움 개최가 결정된 뒤 잔디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5차전도 타 지역에서 열린다면 책임을 뺄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나올 정도였다.

광주시체육회는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9월17일 이후 관수 작업과 잔디 깎기 작업, 부분 및 전면 배토 작업, 영

양제 살포, 병충해 방제, 비료 시비, 통기 작업, 스위퍼 작업 등을 실시하며 컨디션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측면에 이어 중앙에도 1500㎡ 분량의 물 잔디를 확보해 보식을 실시했고, 남은 부분에는 씨앗 파종과 부분 잔디 보식 작업을 병행하며 경기장 전반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했다.

카말루딘 감독관은 이날 실사를 마치며

"잔디 상태가 아주 좋다.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패스 과정에서 불규칙 바운드가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그라운드를 평탄화하는 작업만 남은 것 같다. 전문가들이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는 평가를 내렸다.

카말루딘 감독관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AFC에 제출을 마쳤다. 다음 날에는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의 실사까지 마무리했고, 이르면 11~12일께 경기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AFC의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ACLE 3차전이 광주에서 열리지 못해 책임감이 크다. 5차전은 반드시 광주에서 개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사무처장과 시설부 전 직원이 매일 같이 월드컵경기장에 나와 잔디를 관리한 만큼 긍정적인 실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식 훈련일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ACLE 5차전 공식 훈련을 갖는 오는 26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잔디 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관수 작업과 잔디 깎기 작업, 부분 배토 작업, 영양제 살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병충해 방제와 비료 시비, 전면 배토 작업, 다짐 작업, 스위퍼 작업 등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매직 넘버 소멸' 광주FC, K리그1 잔류 확정

제주와 0-0 무승부... 승점 46점 전북 승리로 경우의 수 모두 삭제

올 시즌 파이널B에 속하게 되며 잔류와 강등의 기로에서 처절한 사투를 펼쳤던 광주FC가 내년에도 1부리그에서 뛰게 됐다. 제주유나이티드와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지만 전북현대모터스가 대구FC에 승리를 거두며 최소 9위를 확보했다.

광주는 10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는 올 시즌 14승 4무 19패(승점 46)를 기록하며 8위를 지켰다.

## 전남드래곤즈, 21일 안방서 준플레이오프

K리그2 정규 라운드 4위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 2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서울이랜드FC를 꺾고 극적인 순위 역전에 성공하며 1부리그 승격을 향한 첫 관문인 준플레이오프를 안방에서 치르게 됐다.

전남은 지난 9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하나은행 K리그 2 2024 3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남은 올 시즌 16승 9무 11패(승점 57)를 기록하며 4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쳤다.

이로써 직전 라운드까지 5위에 위치했던 전남은 한 단계를 올라섰고, 서울이랜

은 이날 경기에 앞서 광주의 자력 잔류를 위한 최소 9위 확보에 필요한 승점은 2점, 매직 넘버는 1이었다. 다만 전북이 같은 시간 열린 대구와 맞대결에서 3-1로 승리하며 올 시즌 10승 11무 16패(승점 41)를 기록,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노선인 10위로 올라섰고 광주와 5점 차가 되면서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잔류를 확정 짓게 됐다.

잔류를 확정 지은 광주는 안방으로 돌아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7위에서 9위 자리를 놓고 전북을 상대로 시즌 최종전에 나선다.

한규빈 기자

## 테일러 "V-리그는 간절히 꿈꿔왔던 무대"

페퍼저축은행, 대체 외인 영입 IBK전 13득점...성공률 27.27%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장소연 감독 체제로 첫 시즌을 한 바퀴도 돌기도 전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전제 1순위로 선발했던 바르바라 지비치가 어깨 부상을 이유로 한국 무대를 떠난 가운데 새 얼굴인 테일러 프리카노가 첫 선을 보였다.

테일러는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6차전에 선발 투입되며 데뷔전을 치렀으나 팀은 셋아웃 패배를 당했다.

이날 경기 직후 테일러는 "V-리그 데뷔전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도 더 잘할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이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테일러는 드래프트 재수 끝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선택을 받으며 극적으로 한국 무대에 입성했다.

그는 "한국이 너무 좋다. 사람들도 음식들도 팬들도 좋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라며 "드래프트에 연속해서 지원할 정도로 V-리그에 오고 싶었다. 불문타리와 페퍼저축은행 모두가 수월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준 높은 V-리그에서 뛰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테일러 프리카노가 지난 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6차전에서 공격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테일러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내 최다인 13득점을 올렸다.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라운드부터는 세터진과 호흡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이 새 과제가 됐다.

그는 "공격에서 점프를 높게 뛰고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에 집중했고,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동료들을 도우려 했다"며 "세터 모두와 호흡에 자신이 있지만 조금 더 맞춰볼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처음 페퍼스타디움에서 마주한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대한 감사

함도 전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창단 첫 봄 배구 진출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테일러는 "팬들의 응원은 환상적이었다. 큰 소리가 인상적이었고, 제 이름을 외치며 응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V-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한 만큼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팀 성적에 보탬이 되겠다. 당연히 봄 배구가 목표이고 우리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